

# 몸값 뛰는 안철수...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속얇이'

“견제·구애, 몸값만 올려준다”

“지지를 곧 꺾일 것” 무대응 기초

이재명 캠프측 공세 자제

이준석 “후보단일화 필요없다”

최근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추고 반등한 가운데 안 후보가 야권 단일화 후보로 적합도에서 윤 후보와 엇치락뒤치락하는 점을 주시하며 대응 전략에 부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2일 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연발부터 이어진 지지를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한 가운데 안 후보가 야권 단일화 후보로 적합도에서 윤 후보와 엇치락뒤치락하는 점을 주시하며 대응 전략에 부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민주당 측에서는 안 후보가 중도·부동층 표심의 지지를 넘어 국민의힘 윤 후보 부진에 따른 보수층의 지지를 흡수하면서 대선 판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측에서는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가 그리 오래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이 전열을 정비하면서 흔들리던 보수층의 표심이 다시 제자리로 찾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런 국면에서 안 후보에 대한 본격적인 공세를 전개할 경우 상대의 ‘체급’만 키워주고 야권 단일화의 판을 깔아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무대응’ 기조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서 안 후보를 격격한 사례는 지난 8일 안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비판 발언을 반박하는 대변인 명의 논평을 1차례 낸 것이 전부다. 안 후보의 거친 발언에도 산발적 비판을 내는데 그치고 있다. 강병원 최고위원이 지난 11일 라디오 방송에서 안 후보를 두고 ‘MB 아바타’, ‘갑철수’ 등의 표현을 하는 정도다.

안 후보를 본격적으로 겨냥 경우, 그 정치적 몸값만 올려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 경우 민주당까지 야권 단일화 국면으로 빨려들어야 할 수 있다고 본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안 후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전열 정비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일단 선대위를 둘러싼 내용 등으로 폭락한 지지율을 끌어 올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후보단일화를 거론할 경우, 안철수 후보의 몸값만 올려줄 수 있다는 것이다. 후보 단일화는 보수층과 정권교체 민심 결집 등을 통해 상당한 지지율 우위를 확보한 뒤에 거론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윤 후보의 지지율 상승이 이뤄지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어느정도 여유도 찾은 분위기다.

이를 반영하듯,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0일 야에 후보단일화가 필요 없다는 입장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는 이날 “단일화는 표를 합쳤을 때, 병합 효과가 있을 때 효과가 극대화된다”며 “안 후보가 약간의 지지율 상승이 있었지만, 자세히 보면 애초 우리 후보를 지지하다 젊은층에서 최근 인재영입 등에 실망한 사람들이 이탈해 안 후보 지지층에 더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우리 후보가 젊은층에 대해 적극적인 행보를 하면 안 후보로 흘러간 지지율을 다시 그대로 돌려받는다”며 “단일화를 해도 큰 효과가 나기 어렵고 (결국) 같은 덩어리를 주고받는 상황이 된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정권교체를 위한 민심 결집을 위해서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카드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윤 후보와 이 후보의 접점 상황이 막판까지 이어진다면 정권교체라는 시대적 과제를 위해 안 후보와의 단일화는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감정적 대립 구도를 만들기 보다는 수면 아래에서 대화의 끈은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안 후보의 상승세는 자체 동력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것이며 지금 후보단일화를 거론하는 것은 윤 후보보다는 안 후보를 부각시키게 될 것”이라며 “하지만 안 후보의 대선 화두도 정권교체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시기와 상황이 전개된다면 후보단일화론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종교 지도자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종교 지도자 만난 문 대통령 “통합과 화합에 마음 써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7대 중산 지도자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남은 마지막 과제는 국민 사이의 지나친 적대와 분열을 치유하고 통합과 화합의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것”이라며 “통합의 사회, 통합의 민주주의를 위해 종교 지도자들께서 잘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오히려 선거 시기가 되면 거꾸로 가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지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의 네거티브 공방이 격해지며 혼탁·과열 양상이 고조되는데 따른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통합과 화합은) 당연

히 정치가 해냈어야 할 몫이지만, 저를 포함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자성하는 모습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협력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인간이 자연과 함께 모두 연결된 하나의 생명공동체라는 사실은 오랜 기간 종교의 가르침이었다”면서 “그러나 세상이 이를 잊고 성장에만 몰두해 지구 환경을 파괴한 탓에 심각한 기후위기를 맞게 됐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 기업의 노력이 하나로 모여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국민의 공감과 참여가 중요한 만큼 종교 지도자께서 탄소중립을

위한 생활 속 실천운동을 이끌어달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코로나를 맞으면서 민주주의, 방역, 보건, 군사, 국제협력 등 모든 분야에서 G7(주요 7개국)에 버금가는 선진국이라는 점을 공인 받았다”며 “종교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평가했다.

이에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대표회장인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남북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해서 역할을 담당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원행 스님은 “중요한 선거가 있는 금년에 국민이 분열하지 않고 상생할 수 있도록 지도자 여러분이 힘을 합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 연속 발사 성공”...실전배치 임박

김정은 전용차량 모니터로 참관

군 당국 “아직 더 많은 분석 필요”

북한이 ‘개입체인저’로 불리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천명한 지 불과 1년만에 ‘대성공’을 선언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까지 직접 참관한 가운데 발사 성공을 주장한 만큼 일반 탄도미사일보다 탐지와 요격이 어려운 신형 미사일의 실전배치가 시간문제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조선중앙통신은 12일 보도를 통해 전날 시험발사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이 1000km 수역의 설정표적을 명중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통신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지난 5일에 쓴 원뿔형태의 탄두부를 갖춘 탄도미사일을 재발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위원장은 모니터 4개가 설치된 전용차량 안에서 발사 장면을 지켜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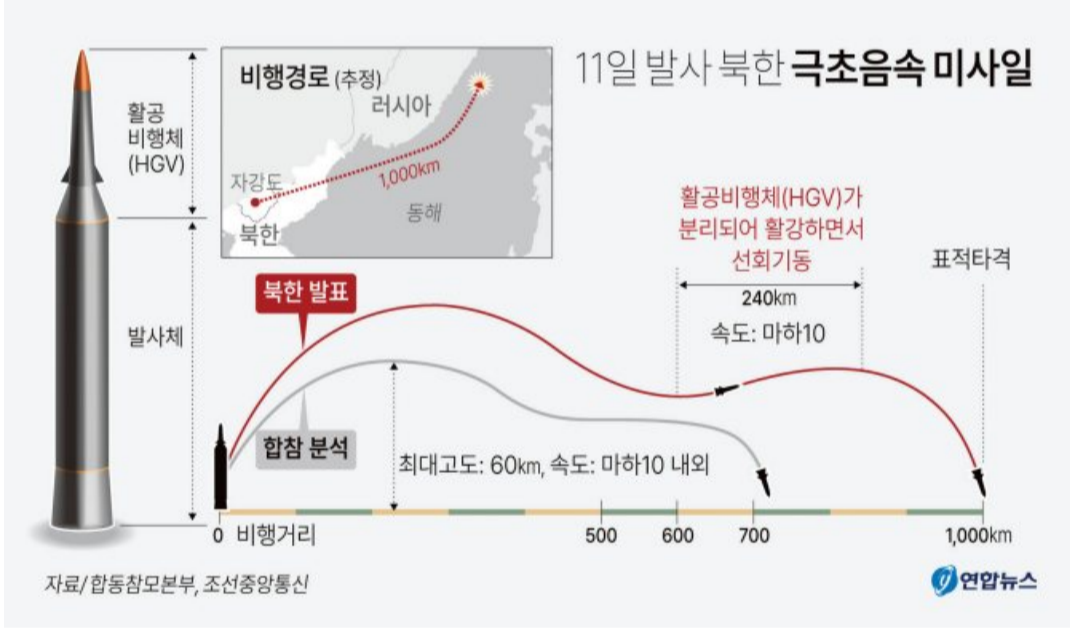
공개된 궤적은 전날 일본 방위성이 예상 탄착지점 등을 표시해 공개한 사격 약도와 거의 일치했다.

북한도 이날 미사일이 600km 지점에서부터 ‘활공 재도약’ 후 240km 강한 선회기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선회기동은 탄도탄 방어망을 회피하는 활공 비행의 의미이다. 저고도로 활공 비행하면 레이더에 잘 포착되지 않고 그만큼 요격도 어려워진다. 다만 군 당국은 극초음속 미사일이 활공비행 및 음속의 수 배에 이르는 속도 유지 여부 등이 관건이라는 점에서, 아직 좀 더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북한이 이날 속도를 발표하지 않은 것도 기술은 낙 측면이 강해 보이지만, 기존 배치된 미사일의 최대 속도와 큰 차이가 없으면 일반 탄도미사일로 치부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추정된다.

군은 전날 북한이 주장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최대 마하 10 내외’로 탐지했는데, 이는 상승 단계에서 정점 고도를 찍기까지 속도였다. 다만, 1만 분리 후 하강 단계에서는 이런 속도가 유지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이 현재까지 북한의 ‘극초음속 성공’ 평가에 회의적인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연합뉴스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 동백꽃아름다운 거문도

거문도 백도 당일 **89,000원**

☺ 여/행/문/의

|메이투어 062)385-0515

|아이티여행사 062)382-8866

• 후원: 삼도해운, 플레티빙 • 승선문의: 061)834-3434

##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